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권 지 성**

(침례신학대학교)

정 선 욱***

(덕성여자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상된 퇴소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제는 “고립무원”, “발목을 잡힘”, “미래를 향해 달려감”으로 나타났다. 고립무원은 ‘진짜 고아가 됨’과 ‘고군분투’로 구성되었다. 발목을 잡힘은 ‘시설, 떠나야 할 고향’, ‘시설 출신이라는 딱지’, ‘가족이 준 상처와 흔적’으로 구성되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감은 ‘시설에서 얻은 것’, ‘함께 일어서기’, ‘미래를 바라봄’, ‘현실을 박차고 달려 나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시설 퇴소생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지침들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아동양육시설, 퇴소생, 생활경험, 질적 연구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생들이 퇴소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상된 퇴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003-B00176).

**제1저자

***교신저자

소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18세가 되면 비자발적으로 퇴소하게 된다. 이러한 퇴소 청소년은 한 해 800-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 2006). 2007년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아동 8,861명 가운데 시설보호에 3,255명(36.6%)이 배치되었고, 위탁보호, 입양 등의 가정보호에 5,616명(63.5%)이 배치되었다(보건복지부, 2007). 2006년부터 가정보호에 배치되는 아동의 수가 시설보호 아동보다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에서 벗어난 청소년(aging out of care)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들 청소년이 사회적 배제라는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보호 기간 동안에도 낙인(특히, 학교에서)과 같은 문제를 경험했고 보호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복지급여 의존, 정신보건 문제, 외로움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홈리스가 되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력수준은 낮고 실업 수준은 높으며 행동 및 정신보건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도 높다(Stein, 2006). 이처럼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가장 배제된 청소년 집단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Broad(1999)는 보호를 떠나는 청소년의 문제는 “사회 정의” 이슈(빈곤, 인종주의와 같은 구조적 배제와 불평등), “사회복지” 이슈(질 낮고 부적절한 양육), “기술적(technical) 문제”(기술(skill) 부족과 결함)의 혼합물이라고 하였다.

또래들의 대부분이 20대까지 집에 머물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에 비해 18세에 퇴소하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비공식적 보호가 취약했던 이들에게 18세는 모든 공식적·비공식적 보호가 단절되는 시기이다. 또한 18세 퇴소와 함께 인생의 중요한 지위 변화, 즉 성인기로의 전환에서 그 기간이 단축되고 압축된다. Mech(1994)에 의하면, 이들의 성인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거주지 알선, 직업 구하기, 직장유지, 건강보호의 접근성, 예산 및 돈 관리 등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밖에 자기지향, 자기표현, 개인적 솔선성, 결정에 대한 책임감 등과 관련된 행동을 격려하고 지향해야 하지만, 집단시설생활의 익명성, 집단적 통제, 획일적 규칙 등은 이러한 개인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Mech, 1994; 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에서 재인용).

최근 들어 이들 퇴소생¹⁾에 대한 정부·민간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소(예정) 아동 자립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주거지원, 대학진학 및 학자금 지원, 자립지원센터 운영,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하여 아동의 건전한 퇴소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2008년 아동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기존의 “아동시설보호”라는 단어 대신에 “아동시설보호 및 자립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퇴소생에 대한 자립지원을 주요 아동복지서비스로 명시

1) 본 연구에서 ‘퇴소생’은 18세에 이르러 아동양육시설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소한 사람들을 이른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것이므로 ‘퇴소아동’, 퇴소 당시 청소년기였으므로 ‘퇴소청소년’,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퇴소청년’ 등의 명칭이 가능할 수 있지만, 모두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대한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퇴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하고 있다. 중앙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 운영,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의무 배치, 두드림 존 사업 등도 자립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한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7년 기획테마사업으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자립준비교육, 특성화사업, 양육시설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를 보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 및 양육을 중심 기능으로 할 뿐, 퇴소와 퇴소 이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²⁾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경우도 현재 어린 아동에게는 효과가 클 것이지만 당사 가까운 장래에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혜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 2007), 더욱이 이미 퇴소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퇴소생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시설보호 관련 연구들은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2000년 이후 퇴소생 관련 연구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퇴소생 관련 연구들은 주로 양적연구방법으로 이루어져 퇴소생이 겪는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김득린, 1996; 강철희, 2001; 이용환, 2003; 신혜령 외, 2003; 김통원·김경륜·김성찬·박은미·이상균, 2005; 이해은, 2007; 이해연 외, 2007; 신혜령·박은미·강현아, 2008). 특히 신혜령 외(2008)와 이해은(2007)의 연구가 특징적이다. 신혜령 외(2008)는 시설퇴소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초의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퇴소한지 5년 이내(2004년부터 2008년 사이 퇴소)의 퇴소청소년의 주거, 가족, 진학, 취업, 자립상태, 심리사회적 적응 등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해은(2007)의 경우 그간의 연구들이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벗어나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퇴소 청소년의 적응을 환경요인(공식적·비공식적 지원)과 개인요인(자립생활기술,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여 적응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연구 대상 추적의 어려움으로 주로 자립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퇴소생, 시설과 연락이 되는 퇴소생, 퇴소한지 2-3년 이내의 어린 퇴소생(이해은(2007)의 연구는 평균 20.93세, 신혜령 외(2008)의 연구는 21.7세)을 연구하거나 연령 제한 없이 연구(신혜령 외(2003) 연구, 평균 21.75세, 퇴소기간 평균 2년 3개월 정도)하였다. 그 결과로 보편적인 퇴소생의 경험을 끌어내지 못하고 퇴소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사회에 어떤 식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해 알 수 없다.

한편, 여러 양적연구들이 퇴소생 관련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Broad, 1999; 신혜령 외, 2003)하고 있다. 특히 Horrocks(2002)는 퇴소생을 이해하는데 있어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을 적용하여 기존의 양적연구가 발견하지 못했던 연속적(sequential)이며 전체적인(holistic) 접근을 강조하였다.

국내에는 퇴소생에 관한 질적 연구가 네 편 정도(신혜령, 1997; 변미희, 2000; 전은진, 2006; 권지성, 2007) 있다. 신혜령(1997)의 경우 교육, 취업, 주거, 지지방, 자립의지 등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본인이 아닌 보육사의 관점에서 사회적응을 분석하여 퇴소생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은 한계가 있다.

2) 일본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뿐만 아니라 자립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부터 보호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퇴소한지 10년 이상 된 퇴소생 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퇴소생의 적응유형을 퇴소 당시의 자아개념과 현실인식에 따라 능동적 사회적응형, 수동적 사회적응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적응과정을 제시한 변미희(2000)의 연구는 퇴소후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적응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적응과정을 살피고 그 유형을 분류하기에는 3명의 사례가 매우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 적응과정을 파악하고 적응유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면 더 많은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근거 이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전은진(2006)은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퇴소 후 1년 미만의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생활 경험을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초기 경험에 국한된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권지성(2007)은 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여 퇴소 후 5년 이상 된 퇴소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퇴소생의 과거(시설보호를 받을 당시의 경험)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상대적으로 퇴소 생활의 의미 발견에 소홀하였고 그 결과 퇴소 생활 경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경과한 퇴소생을 대상으로 퇴소생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퇴소생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2. 문헌검토

퇴소는 시설보호, 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 등의 공식적 보호가 종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설보호의 비중이 큰 우리의 경우에는 시설 퇴소생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지만,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위탁보호에서 보호 종결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위탁보호와 달리 원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대집단에서 장기간 생활하였기에 동일한 퇴소 상황에서도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다른 어려움(예를 들어, 낙인과 차별)과 대처방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보호 종결을 경험하는 퇴소생들은 공통적으로 자립(의존→자립)과 전환(보호→자립, 청소년기→성인기)이라는 문제를 경험한다. 여기에서는 퇴소처에 관계없이 퇴소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퇴소생의 적응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퇴소생이 겪는 어려움(자립육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1) 퇴소생의 적응

‘적응’은 일상의 요구와 도전을 변화시키거나 도전하는 과정을 뜻하며, 개인은 인지적, 정서적 과정 뿐만 아니라 행동변화, 대처전략에 의존하여 환경에 대처한다(Creer, 1997; 정선옥, 2002에서 재인용). 퇴소 청소년 적응과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이해은(2007), 신혜령 외(2003)가 대표적이다. 이해은(2007)

의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18세 이상-25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퇴소청소년의 적응을 환경요인(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지원), 개인요인(자립생활기술,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립생활관에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이 자립생활관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소청소년에 대한 공식적 서비스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식적 서비스는 자립생활기술을 매개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비공식적 자원도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비공식적 자원의 경우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특징은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퇴소 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는 점과 적응을 부적응을 통해 살펴보지 않고 퇴소 후 생활의 성공적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 삶의 만족도를 지표로 사용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이 편중된 문제, 즉 자립생활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64명(58.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일반적인 퇴소 청소년 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신혜령 외(2003)는 퇴소아동의 자립생활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립'은 성공적인 상호의존의 성취로 자신의 '독립적 상태'를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신혜령 외, 2003). 자립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속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 충족적(self-sufficient)이고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Maluccion, 1990; 신혜령 외, 2003에서 재인용). 자립생활 영역은 일상생활과업(영양섭취, 식단계획, 시장보기, 식사준비, 상차림, 주방청소, 가정관리, 가정의 안전관리 등), 주택 및 지역사회자원, 돈 관리, 자기 보호(개인위생, 건강, 술, 약물과 담배, 그리고 성), 사회발달(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 일·공부 습관(직업계획, 취업 결정, 공부 등) 등 6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뉜다(신혜령 외, 2003). 연구 결과, 자립생활 수준의 경우 자립생활 영역 중에서 자기보호 영역이 제일 높게 평가되었고 퇴소아동의 전체 자립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별(여자)남자, 이사 횟수(이사를 많이 할수록 자립생활수준 높음), 가족의 지지(가족의 지지가 없을수록 자립생활수준이 높음), 시설의 지지(시설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립생활 수준이 높음)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특이한 것은 외국의 연구와 달리 가족의 지지가 자립생활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연구도 이해은(2007)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가운데 시설과 연락 가능한 퇴소생과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아동(95명, 60.9%)을 대상으로 한 한계를 갖는다.

국내에서 퇴소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국외의 경우 위탁 보호 종결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학력, 학업성취도 등), 취업(고용형태, 고용기간, 급여 등), 거주지(거주형태, 거주기간 등), 지지체계(가족, 친척, 친구, 보육사, 사회복지사, 지역사회기관 등), 개인적 특성(정체성, 효능감, 존중감, 문제행동, 정신건강 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보호·위험요인, 환경·개인요인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각 요인들의 영향력 및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과 자립준비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이해은, 2007).

한편, 퇴소생의 적응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Stein(2006)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에서 벗어나는 청소년 연구에 이론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적응을 애착이론, 초점이론, 탄력성(resilience)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애착이론은 일정연령에 도달하여 보호에서 벗어나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관점을 제공한다. 어린 시절 이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역경과 부모의 상실에 심리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어린 아동의 노력에 관한 이론을 공식화한 Bowlby, 다양한 보호 제공 환경 내에서의 애착행동에 대한 Ainsworth의 분류 등이 애착이론의 토대를 구성한다. 애착이론은 친부모(원가족) 분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원가족 관계의 유지(지속)가 갖는 의미, 원가족을 대신할 다른 사람과의 대리적 애착 관계의 발전 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아동복지 연구자들이 아동복지체계(위탁, 입양 등의 아동복지서비스)가 아동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는 이론이다(Leathers, 2000).

초점 이론(모델)은 청소년이 자기 삶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이 이론은 주로 Colema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정신분석적·사회학적 관점에서 도출된 “전통적” 관점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서로 불일치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즉, 실제 많은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를 아주 큰 심리적인 혼란 혹은 이상 행동의 시기로 잘못 표현하고 있는 정신분석 혹은 사회학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oleman의 초점 모델은 세 가지 면에서 발달 단계 이론과 다르다(Stein, 2006). 첫째, 한 가지 이슈의 해결을 다음 단계를 방해하는 필수조건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초점 모델은 단계들 간에 고정된 경계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다. 결국 이슈들은 특정 연령 혹은 발달 수준과 반드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발달 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 초점 모델에 의하면 보호로부터 전환되는 시기와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보호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략 16-17세에 독립생활을 하게 되는 반면, 또래들의 대부분은 20대까지 집에 머문다. 보호에서 벗어나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종 사건(final event)이고 어려울 때 돌아갈 대안이 없다. 또한 이들은 보호를 떠나면서 인생의 주요한 지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성인기로의 여정이 단축되고 압축된다. 그러기에 더 정상적인 전환을 위한 기회 제공, 초기 20대에 필요한 정서적, 실제적 지원 제공,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여지(psychological space)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탄력성(resilience)은 불리한 배경, 문제, 역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성으로 정의된다. 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고 대처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보호를 떠나는 많은 청소년들은 또래와 비교할 때 매우 어려운 인생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연구들은 보호를 떠나는 청소년을 크게 3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전환을 잘한(moving on)’ 청소년으로 탄력성이 높고 보호 중단 후 잘 살아가는 청소년, 둘째, ‘생존자’로 그럭저럭 간신히 대처하고 있고 탄력성이 제공받는 전문적, 개인적 지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청소년, 셋째, ‘희생자’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Stein, 2006). 퇴소 청소년의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에는 배치 안정성,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자기 이해,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교육 성취) 등이 있다.

2) 퇴소생이 겪는 어려움(자립욕구)

기존 연구에서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학력과 관련된 문제, 취업과 관련된 문제,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 사회적 지지망 부족과 관련된 문제 등이다(신혜령 외, 2003). 우선 학력은 학업 중퇴와 관련된 것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과 이로 인한 기술 습득의 기회 제한이 문제가 된다. 학력과 기술은 취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퇴소 청소년은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이나 전직이 매우 잦다. 이명목(1991)의 연구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첫 직장을 떠난 퇴소아동은 45.2%나 되었다.

또한 퇴소 청소년은 주거 불안정 문제도 경험한다. 퇴소 후 이들의 주거환경은 생각했던 만큼 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 또는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시설 퇴소 시 받는 자립정착금으로는 월세 보증금도 내기 힘들기 때문에 기숙사가 갖추어져 있는 직업을 선호하게 된다. 자립생활관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직장과의 거리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낮다. 퇴소 청소년은 결국 도시에서 쉽게 유흥업소를 선택하고 친구 혹은 선배들과 월세를 얻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권지성, 2007). 주거지의 불안정성이 친구나 선배들과의 동거경향을 높인데, 이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갈 곳 없이 동거하는 경우가 되어 대부분 경제력을 상실한 퇴소아동들의 모임장소가 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줄만한 통제기능이 없어 범죄나 비행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남윤희, 1994).

마지막으로 퇴소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망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다. 퇴소 준비 아동과 퇴소 청소년의 정서적 상태를 비교한 강철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퇴소준비아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변수(생활비, 주거지, 병과 사고에 대한 대처, 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에서 불안함 정도가 높고 관계적인 변수(주변인 도움,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 등)에 대한 불안 정도는 중간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퇴소 청소년은 안정된 직장, 소외와 상처에 대한 대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갖는 것,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서 중간 이상의 불안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퇴소 청소년이 퇴소 이후 관계적 측면의 장애를 많이 경험함을 보여준다.

또한 신혜령 외 (2008)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생존율이 52.6%로 높게 나타났지만, 시설 보호 기간 중에 부모를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소 후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시설의 경우에도 퇴소 이후 퇴소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퇴소 청소년은 퇴소 이후 온전히 혼자 남게 된다. 김통원 외(2005)에 의하면, 퇴소 이후 시설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지원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퇴소아동이 41.4%로 나타나 퇴소아동에 대한 시설차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퇴소 이후 가족과 연락이나 만남을 유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퇴소 이후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퇴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설과의 관계 단절은 퇴소 이후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에 퇴소아동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런데 퇴소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모두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Stein(2008)이 지적했듯이 더 탄력

적(resilient)으로 지내는 퇴소생도 있다. 탄력적인 퇴소생은 살아오는 동안 안정된 애착 관계를 포함하여 안정성(stability)과 연속성(continuity)을 경험하였고 과거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있어 그 관계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퇴소 전에 어느 정도의 학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퇴소 준비도 점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보호 기간 동안의 보호의 질, 일반적인 전환과 유사한 형태로의 점진적인 전환, 퇴소 후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퇴소생을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한편, 퇴소생의 자립지원관련 욕구를 살펴보면(김통원 외, 2005; 신혜령 외, 2008), 퇴소 후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던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와 주택문제이며, 그 결과 자립지원금의 확대,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1) 질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이후 생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퇴소 후 생활실태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퇴소 후 생활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파악하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현상(퇴소 후 생활경험)에 대해 기존 지식이 별로 없어 새로운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했던 연구참여자에 대한 접근과 접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양적 연구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양적 연구접근보다 질적 연구접근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접근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질적 연구접근은 하나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질적 연구접근이라는 우산 속에는 근거이론, 현상학,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사례연구 등 다양한 세부 방법론(또는 접근)들이 존재한다. 학문전통이나 주제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러한 접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접근에 의존하지 않고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접근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아동복지를 세부전공하면서 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해 왔고, 그와 함께 다양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아왔다. 따라서 특정 연구접근에 의존하기보다 기본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면서 주제에 적합한 접근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난 퇴소생들이다. 5년을 갓 넘긴 참여자도 있고, 수십 년이 지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분포되었다. 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퇴소 이후 3년 정도가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기간이라는 현장의 경험을 근거로 이 기간을 어느 정도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고, 대학에 진학한 퇴소생들의 경험도 포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접근하게 된 경로를 소개하자면, 평소 연구자가 관계를 맺고 있던 지방의 두 개 시설에 연락하여 본 연구에 참여할만한 퇴소생들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연구자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서울지역의 아동양육시설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한 시설의 시설장에게 연락하여 연구참여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시설장과 직원들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미 시설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하는 이는 없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5명의 퇴소생과 접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개별적인 정보들은 밝히지 않는다.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성별로 볼 때 남자 8명, 여자 7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자들은 표집 과정에서 시설 퇴소 이후 다양한 경험을 한 퇴소생들을 만나려 하였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참여자와 다른 경험을 한 퇴소생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장들의 추천을 통해 접촉하였다는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구에 반영된 경험의 범위가 제한된 한계가 있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연구자들과 2명의 연구보조원이 수집한 것이다.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접이었다. 면접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집단으로 모여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녹음한 경우도 있다. 개별면접은 연구참여자로 1-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서 제시된 주된 질문은 “시설 퇴소 후 어떻게 생활하였습니까?”라는 것이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시설 퇴소생들의 일반적인 생활실태는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질문하거나 미리 구체적인 질문목록을 작성해가지는 않았다. 처음 제시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고 더 깊이 탐구하거나 다른 경험들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김영천(1996)이 제시한 질적 분석의 일반적 절차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퇴소생과의 면접을 통해 녹음한 자료를 축어록의 형태로 필사하였다. 축어록을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표시하고 개념화하였다. 개념화된 내용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범주화한 후 원래의 자료(축어록)로 돌아가 다시 읽으면서 분석에 관한 처음의 생각을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화가 다시 이루어지고 범주가 새롭게 생겨나며 유사한 범주가 통합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범주들에 대해 해석을 덧붙이는 것으로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각자 분석한 것을 순환적으로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학술세미나에서 이 논문의 초안을 발표하여 지정토론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4. 연구 결과

아동양육시설 퇴소생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제는 “고립무원”, “발목을 잡힘”, “미래를 향해 달려감”으로 나타났다. 고립무원은 ‘진짜 고아가 됨’과 ‘고군분투’로 구성되었다. 발목을 잡힘은 ‘시설, 떠나야 할 고향’, ‘시설 출신이라는 딱지’, ‘가족이 준 상처와 흔적’으로 구성되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감은 ‘시설에서 얻은 것’, ‘함께 일어서기’, ‘미래를 바라봄’, ‘현실을 박차고 달려나감’으로 구성되었다. 주제와 범주, 하위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결과

주제	범주	하위범주
고립무원	진짜 고아가 됨	혈혈단신
		떨어져 지낸 만큼 소원해진 관계
	고군분투	막막함
		버거운 짐
		맨땅에 헤딩하기
	백방으로 뛰어도 돈을 모으기 어려움	
발목을 잡힘	시설, 떠나야 할 고향	시설에서 보낸 생활을 후회함
		어쩔 수 없는 시설생활의 잔영
		점점 서먹해지는 시설
	시설 출신이라는 딱지	알아서 좋을 것 없는 비밀
	가족이 준 상처와 흔적	그리움과 원망스러움
여전히 아프고 쓰린 상처		
미래를 향해 달려감	시설에서 얻은 것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
		시설 생활에 감사함
		도움을 받은 만큼 도와주고 싶음
		힘든 생활이 새삼스럽지 않음
	함께 일어서기	마중물
		그래도 의지할 사람은 같은 시설출신뿐
	미래를 바라봄	정신을 바짝 차림
		여전히 막연함
	현실을 박차고 달려나감	제자리 걸음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감

1) 고립무원³⁾

시설 퇴소생들은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다. 즉, 고립되어 구원(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먼저 퇴소생들은 말 그대로 '진짜 고아'가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대부분이 한부모가정의 아동이거나 해체가정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흔히 고아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에는 '고아'가 없다. 그런데, 시설을 벗어나면서 '진짜 고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된 퇴소생들은 사회에서 고군분투를 하게 된다.

(1) 진짜 고아가 됨

의지할 곳 없어 외로운 홀몸, 즉 혈혈단신. 퇴소생이 그렇다. 시설에서는 늘 복적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잊고 지냈다. 오히려 혼자 있고 싶을 때에도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퇴소 후에는 철저히 혼자다. 퇴소 후 사회로 내던져진 기분이다.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도 잠깐. 이제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다. 자신을 지켜봐주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 가족이라고 부를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탓에 다시 어울려 지내기가 어렵다.

① 혈혈단신

혼자라는 생각으로 힘들고 외롭고 무서울 때도 있다. 퇴소 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위안을 삼을 곳이 없어 우울하고 불안하다. 사는 게 힘이 들어 결혼을 빨리해서 안정되고 싶은 생각도 든다.

힘들어져도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달려갈 부모도 없고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끼리 만나면서 위로를 받는데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중략) 혼자 살면 더 힘들죠. 혼자 살다가 폐인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G)

② 떨어져 지낸 만큼 소원해진 관계

퇴소 후 처음 가족을 만난 경우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가족과 연락이 닿았던 경우에도 가족과의 관계가 그다지 애뜻하지 않다. 부모와 연락이 닿더라도 퇴소 직후부터 부모와 같이 살지 않거나 처음에는 같이 살다가 따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핏줄이지만 연락도 뜸하고 오랜 세월 정이 들지 않아 관심이 적다. 부모를 만나 함께 살아도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같이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야말로 "out of sight, out of mind"인 셈이다.

어머니가 좋아하죠. 저는 뭐... 솔직히 어머니가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느낌이... 너무 안 봤으니까. 엄마 같단 생각이 안 들어요, 잘. (C)

3) 고립무원(孤立無援) 「명사」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국립국어원, 1999).

엄마한테도 그런 이야기 시시콜콜 안 해요. 어릴 때는 내가 엄마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를 거다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모를 거라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엄마는 말로 너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하는데 말해도 이해 못하신다고 보거든요.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런 거 같아요. (G)

(2) 고군분투⁴⁾

홀로 버텨야 하는 사회생활, 그것은 고군분투의 삶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짐이 많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학력도 낮고 인맥도 없어 돈벌이도 힘들다. 급여 자체가 적은 것도 있지만 살이 빠질 정도로 일을 힘들게 해도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다. 퇴소 직후 받은 얼마 안 되는 자립정착금을 다단계에 속아 날리기도 하고 어영부영 쓰다 보니 남는 것이 없다. 또한 집세 때문에 돈을 모으기 어렵고 벌이만큼 지출한다.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아 별면 번대로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악착같이 벌어서 돈을 모아도 생존문제가 고민거리다.

① 막막함

퇴소 자체는 좋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시설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대부분 다 알아서 해주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됐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 시설에 있을 때부터 도움 받는 것에 익숙하여 자립심이 부족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모르다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생을 배운다. 상의할 사람이 있었더라면 일이 잘못되거나 영문도 모른 채 불이익을 당하는 경험 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퇴소생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 화가 난다.

아휴. 우리 집 애들 바보 같애. 진짜. 아니 떼먹은 돈도 못 받고 그런 알지도 못하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 못하고... (J)

② 버거운 짐

퇴소 후에 200-3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았다. 당장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립정착금으로는 어렵도 없다. 사실 돈이 생겨도 큰 돈을 관리해본 적이 없어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 의지할 곳이 없는 퇴소생에게 건강은 곧 재산이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시설생활에서 정해진 식사시간에 단채로 식사하는 것이 군대 같아 싫었지만 밥을 굶지는 않았다. 그러나 퇴소 후 끼니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그러다보니 굶을 때도 많다. 식사해결의 어려움은 남자 퇴소생의 경우 더욱 심하다. 밥을 사먹는 경우도 많은데, 돈이

4) 고군-분투(孤軍奮鬪) 「명사」 「1」 따로 떨어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움. ≡고전분투 「1」. 「2」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벽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전분투 (국립국어원, 1999).

없는 경우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다반사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쓸 생각을 하지 모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중략)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모들이 챙겨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아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챙겨주질 않기 때문에 사실 돈을 모으기가 그런 습관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I)

③ 맨땅에 헤딩하기

‘맨땅에 헤딩하기’는 보통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나 참조할 만한 것도 없고 또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사용되는 관용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은 이렇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니깐 힘들잖아요. 마음이 돈도 없고 막. 말 그대로 몸뚱아리 하나 딱 놓고 나오는 건데. 너무 힘들죠. (A)

④ 백방으로 뛰어도 돈을 모으기 어려움

퇴소생들은 사장이나 재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돈을 벌기도 어렵고 모으기도 어렵다. 시설생활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면, 시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아동은 신청자의 원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음)도 있지만 취직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하고 퇴소 후 학교(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나 시설에서 소개해준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다. 급여가 많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이직을 고려하고 이직을 감행하기도 한다. 더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진학은 꿈일 뿐이다.

이제 많이 못 배웠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해봐야 이제 3D업종 이런 것만 하잖아요. 힘든 일 여자들은 뭐 생산업체 남자는 거의 노가다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G)

2) 발목을 잡힘

시설 퇴소생들은 혈혈단신으로 고군분투를 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발목을 잡는 것이 너무 많다. 시설은 퇴소생들에게 고향 같은 곳이지만 떠나야 할 고향이다. 자신을 버린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어서 여전히 마음을 괴롭힌다. 시설 출신이라는 딱지가 늘 붙어 다니는 것 같다.

(1) 시설, 떠나야 할 고향

시설은 떠나야 할 고향이다. 몸은 이미 떠났고, 마음도 떠나고 싶다. 어차피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체화된 습관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자꾸 나타나서 힘들다. 시설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알아서 좋을 것은 없다.

① 시설에서 보낸 생활을 후회함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퇴소 후 생활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것이 내내 후회스럽다. 시설 후배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살기를 바라지만 선배의 백 마디 말보다 시설 후배 스스로의 깨우침이 더 중요하기에 후배들이 공부와 퇴소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깨우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다 공짜로 나오고 배고픈 거 모르고 자라니까. 그냥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도 항상 그 생각 하거든요. 자립심만 조금만 더 길렀으면 어떨까. (중략) 누구해주지 말고 뭐 있잖아요. 노동의 대가 그런 걸 빨리 깨우쳤으면 되는데. (C)

② 어쩔 수 없는 시설생활의 잔영

퇴소 후 시설로부터 물리적·심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시설생활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설에서의 모습이 오래된 습관처럼 여전히 남아 있다.

여럿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활발해야 했고 눈치가 빠르고 붙임성이 있어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했고 그 결과 시설에서 예쁨을 받고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퇴소 후 사람들과 관계하기가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들 간에 갈등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이 상처가 되어 “텐 데 털 안 난다”는 속담처럼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관계에 점점 신중해지고, 긍정적으로는 득실을 따져 사람을 가려서 만나게 되는 눈도 생겨났다.

사람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시설생활 얘기에 대한 부담이 커져 만남을 회피하게 된다. 만나도 속 깊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이성 관계에서 이별의 상처는 이후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 어렵게 한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에 신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러다보니 관계에 몰입하게 되고 몰입했던 관계가 틀어진 경우 견디기가 매우 힘들다.

업사에 들어가서는 내가 튀지 않으면 나만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아. 튀어야 되니까. 튀지 않고 남한테 더 애고를 떨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고정관념이 바뀌어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하고 가까워질라하면 내가 좀 더 예쁜 노릇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더 바쳐야 돼. 아니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가 사람을 사귄다면 그렇게 되는거야. (중략)

근데 그게 이게 언니말대로 업사 사람들은 어떤 한 장애를 갖고 있어. 정신적으로나 어느 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래 그게 좀 심해. 언니 그게 이 마음속이든 머릿속이든 너무 크게 갖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회 생활하는데 힘든 거 같애. 업사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못 견뎌내버려. 응, 견디질 못하고 항상 불안한 거야, 마음이. (집단)

③ 점점 서먹해지는 시설

퇴소 후 시간이 흐를수록 시설과의 관계는 알아진다.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시설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서먹한 감정이 든다. 퇴소 후 전국 각지로 흩어져 생활하기에 바빠 시설을 찾는 일이 점차 어려워진다.

아무래도 지방에 흩어져있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서로 살다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끊어지고 이젠 지금 안정적으로 살거나 결혼해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살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연락이 되는데 현재 가있고 그런 애들하고는 연락이 힘들죠. (G)

(2) 시설 출신이라는 딱지

어린 시절, 시설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했다. '시설출신이 뭐 대수냐?' 그리고 싶지만, 그래도 시설출신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 시설출신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더 밝고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도 한다.

① 알아서 좋을 것 없는 비밀

시설 퇴소생으로 불이익을 당한 적도 있고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 관계없이 퇴소생 스스로 움츠러드는 경우도 있어 시설출신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괜히 말했다가 자신을 다르게 볼까 염려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 시설에 있다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편견과 차별의 벽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시설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떼려고 해도 땔 수 없어, 언제 퇴소생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지 알 수 없다. 퇴소생이 양지에 있는 경우, 과거는 양지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지만 힘겨운 퇴소생에게 과거는 더욱 짙은 그림자를 만든다.

어쨌든 과거는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 결국 시설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해가 될 것도 없지만, 득이 될 것도 없어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다.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지만 시설출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굵지 않은 않다. 그래서 다르게 보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보통 저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그쪽 생활하면서 인생에 도움은 많이 됐지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거나 솔직히 그러지는 못해요. (중략) 굳이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했으면 당했지 이익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 (중략) 사람들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하니까 굳이 제가 그런 거를 남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는데 지장도 없고 크게. (M)

(3) 가족이 준 상처와 흔적

시설생활 중에 가족과 연락이 닿아 서로 교류한 경우도 있지만 퇴소 후에 어렵게 가족을 찾아 만나기도 한다. 퇴소생에게 가정사는 늘 가슴 아픈 일이다. 행복한 가정에서 살지 못한 것이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자신이 없게 만든다. 부모나 가족과 떨어져 낯선 시설에서 지내게 된 일은 커다란 상처가 되었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진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① 그리움과 원망스러움

부모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문득 부모가 그리웠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엄마의 모습을 상상했었다. 술을 먹고 시설을 찾아오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어머니는 기대와 사뭇 다르다. 그 모습에 화도 나고 지금까지 원망했던 아버지에게 미안하다. 어떤 이는 퇴소 후 생활이 힘들 때면 이렇게 만든 부모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솔직히 내가 안정적으로 돼서 했지만 작년이나 올 초만 해도 정말 내 인생 자체가 구질구질해 보이는... 얼굴도 모르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고 이걸 아마도 꾸준히 갈 거 같아요. (중략)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그렇죠. (H)

내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했던게... (중략) 아빠 때문에 엄마 헤어진 거다. 지금 엄마 우리 엄마는 혼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중략) 지금도 아빠생각을 하면은 제가 진짜 목이 매여요. 아빠는 근데 엄마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중략)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미워가지고. (O)

② 여전히 아프고 쓰린 상처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상처는 절대 잊을 수 없고 그 상처가 평생 동안 계속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아물고 무뎠다지만 상처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다. 상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은 부모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어릴 때는 오히려 슬프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감각도 없어져요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워낙에 저기되니까. 내가 뭐 여기 와서 비참하고 슬프고 부모가 날 버렸다 이런 감각도 살다보면 없어져요. (중략) 우울할 때 보면은 저는 자꾸 그렇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어릴 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충격 받은 게 그 기억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마음에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엄마 품에서 삭 나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G)

솔직히. 아니 나는 자주 여기가 아파. 잊고 사는 거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자주 아파. 청소를 하다가도 아프고 밥을 먹다가도 아파서 밥이 안 넘어가. 가끔 솔직히 돈도 필요하고 수금도 안 되고 하면 옛날 생각이 다 나. 아 너무 옛날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구나 하면서. 여기가 아파. 입맛 없고 그니까 많아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집단)

③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

퇴소생들은 마음의 흔들림 없이 어떤 곳에선 착실하게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퇴소 후 부닥친 외로움과 현실문제에 대한 도피처로 결혼을 생각하기도 했다. 결혼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와 시설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게 되면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연애 과정이나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에게 시설출신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런 부담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과거를 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는 서로 다 아는 사이인 퇴소생끼리의 만남과 결혼이 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다 아는 퇴소생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 서로 다 알아서 편하지만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해 기대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교제와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신의 부모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결혼을 가로막기도 한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고 싶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걱정된다. 자신의 부모와는 다르게 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시설출신이라는 부담은 여자 퇴소생이 남자 퇴소생보다 더하다. 남자 퇴소생에게는 시설생활이 별 흠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여자 퇴소생에게 시설생활은 큰 부담이다. 남자 퇴소생의 경우 “때가 되면 다 하겠지. 남들도 하는데” 이러면서 결혼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반을 잡은 후에 결혼할 생각으로 결혼에 대비한 현실적인 준비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보호받고 의지를 하고 싶다.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면 이 불안한 생활도 끝이 날 것 같다. 현재의 외로움을 시설생활과 연결 짓지 않고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교제과정에서 시설생활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다. 결혼을 할 때도 시설생활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처음에는 나와서 외롭고 막 이러니까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그제 되게 부러운 거예요. 이제 막 다른 집 머느리로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되게 갖고 싶고 좋았어요.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 빨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O)

3) 미래를 향해 달려감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퇴소생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시설생활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곳에서 얻은 것들도 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많지는 않지만 도와줄 사람들도 있다.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처럼 계획한 일들이 잘 안되고 그래서 주저앉아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앞만 보며 달려가야 한다.

(1) 시설에서 얻은 것

시설생활과 관련된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퇴소 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한다. 퇴소 후 한 걸음

물러나 시설생활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설생활이 현재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인정한다. 때를 맞고 단체생활을 강요받고 했던, 그래서 끔찍하게 싫었던 시설생활의 일부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되기 시작한다.

① 시설생활에 감사함

물론 시설에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시설에 와서 다행인 것도 많다. 시설에 와서 의식주 해결이 가능했고 공부도 할 수 있었다. 단체생활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도 익히게 되었고 시설프로그램을 통해 번듯한 취미도 갖게 되었다.

제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거 같아요. 그런 생활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

② 도움을 받은 만큼 도와주고 싶음

같은 시설출신에 대해 형제애가 느껴지고 애뜻한 마음도 생긴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도와주고 싶어 시설 후배들을 찾아 챙겨준다. 바빠서 시설을 찾지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시설 후배 편에 있다.

먼저 나왔던 선배들 인맥으로 조금씩 얽혀살다가 살길을 찾아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구요. 지금 아마 동생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도 내가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개네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I)

③ 힘든 생활이 새삼스럽지 않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퇴소후의 생활이 낯설지 않고 힘든 생활에 빨리 적응한다. 사실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치스럽다.

회사에 딱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정집에 있는 애들은 “아유 일이 힘들어” 이러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단체생활을 해왔고 또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응은 빨리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적응력이나 사람 대인관계나 이런 거는 빨리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O)

잘살던 사람이 갑자기 못살아 버리면 진짜 힘들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나가면 굉장히 알파가 되죠. 어차피 부모들이 다 나중에 살아 있다가 죽는 거고 미리 겪었다고 생각하면 잘 살다가 부모나면 팔짱 짱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한 번 겪었다 생각하면 나중에 뭐 이런 일이 딱 쳐도 힘들겠어요? 그런 거 겪었던 사람인데... (B)

(2) 함께 일어서기

① 마중물⁵⁾

아무 것도 없이 새 출발하는 퇴소생에게 가족의 원조는 마중물과 같다. 가족은 시설을 대신할 일종의 보호막으로 퇴소생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퇴소생들 사이에서 돌아갈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가장 행복한 케이스로 불린다. 가족이 있어 막막한 퇴소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

운이 좋은 편이죠.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저는 그나마 저희 엄마가 챙겨주셔서 바로 집으로 갔죠. 퇴계 잘된 케이스죠. 그나마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E)

② 그래도 의지할 사람은 같은 시설출신뿐

퇴소하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소한 사람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집과 가재도구를 마련하거나 먼저 퇴소한 선배 집에 얹혀 살기도 한다. 퇴소생끼리는 마음이 통해서 편하다. 힘들 때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도 심적으로 위안이 된다. 퇴소 직후 시설출신과 동거하면서 헛헛함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시설출신과의 동거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발전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퇴소생 중에는 아무 대책 없이 며칠 일하고 며칠 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친구는 친구라지만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진 선배와의 동거가 발전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렇지만 자립정착금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같은 시설출신은 큰 밑천이 된다.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퇴소 후 같은 시설출신 선배와 함께 생활한다. 일단 시설출신들끼리는 말이 잘 통해 편안하다. 선배가 직장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선배, 동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퇴소생은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혈육과 같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고 자주 보는 사람이 정도 많이 들고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기 쉽다.

서로 말이 통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막 말해도 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해도 되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말도 있고 같이 자라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말할 때 아무래도 서로 편하고 말하는 게 그런 게 강해요. (G)

(3) 미래를 바라봄

① 정신을 바짝 차림

온전히 스스로 그려가는 현재와 미래가 불안하기 그지없다. 여차하면 궤도 이탈이고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비집고 나올

5) 마중-물 「명사」. 펴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아니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국립국어원, 1999).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달려야한다. 불안감이 언제 엄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생활은 생각하기, 마음먹기 나름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힘겨움에 깔려버릴지도 모른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제까지 신세타령과 남의 탓만 할 수 없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빨리 빨리 이렇게 잘. 너무 이렇게 일반 가정 애들은 막 뭐 그냥 뭐. 집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쪽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중략) 불안하니까 빨리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야지만 내가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죠. (O)

② 여전히 막연함

걱정이 왜 없고 현실이 왜 고단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언제까지 과거에 잡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꿈꾼다. 돈 때문에 포기한 학업을 계속하고 싶고 내 사업을 하고 싶기도 하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딱 남들만큼만 살고 싶다.

꿈을 위해 고단한 현실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불안감이 완전히 떨쳐지는 것은 아니다. 꿈이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꿈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 좀 하고 그때부터. 그냥 이것저것 해볼려고 공부도 좀 하고 그냥 공부. 그냥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것 좀 하고.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요. (중략)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그냥 서른 살부터. 그냥 오토바이. 그런 거 탔다가 한 몇 개월 탔다가 좀 안 되가지고 그냥 팔았다가 요번에 다시 살려구요. 돈 모아서. (중략) 그냥 일본 가서 일본 가서 납품이나 할까 막 생각도 했었고. 꿈은 크죠. 꿈은 진짜 커요. 그냥 부자 되긴 싫고 재벌이 되고 싶다 막 그 생각이 들죠. 그냥 많이 모으면 뭐 될 것 같아요. 뭔가가. (중략) 아직까지 그렇게 고민 크게 고민 한 적 없어요. 왜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 한 적이 없어요. (C).

(4) 현실을 박차고 달려나감

퇴소생이 가진 것은 자기 한 몸밖에 없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남들에게는 평범하고 쉬워 보이는 일이 퇴소생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야하고 어쩔 수 없었던 과거나 현재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려가는 미래를 바라보며 달린다. 그렇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막연하다. 그러기에 어떤 퇴소생은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① 제자리걸음

의지할 데가 없는 퇴소생은 하던 일이 힘겨울 때 증도에 쉽게 포기하고 술을 찾아 위안을 삼기도 한다. 또한 안 되는 일에 대해 시설출신이 될 하겠냐는 식의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아 되는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이 없고 뭉개고 있다고 안타까울 것도 없다. 생활이 나아

지지도 않는다. 늘 그 자리에 머물 뿐이다.

꿈은 커요. 근데 실천을 잘... 현실이 안 도와줘서 그렇지 원래 현실이 냉정해가지고, 노력했다가 포기했다가 노력했다가 포기했다가 그래요. (C)

②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감

남들만큼만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돌아가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발맞춰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세상의 어려움을 버텨내기 위해 더 독해져야 하고 더 많이 애써야 한다. 애쓰며 사는 인생, 그래서 가끔씩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다.

누가 내 앞길을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니까. (중략) 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개척해야겠다. (O)

그냥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방법 밖에는 없더라고요. 뭐 저희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다고 크게 몇 억씩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움직여서 내가 벌어서 윤택한 생활을 할려면은 내가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N)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생들의 퇴소 이후 생활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퇴소생 지원에 있어 몇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생에는 크든 작든 마음에 힘이 되는 존재(대상)가 필요하다. 시설 퇴소생의 경우 원가족, 시설 어디에도 마음의 닻을 내리지 못했다. 원가족과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했고 시설 생활 동안에 원가족 접촉의 기회도 매우 적었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양육자가 계속 바뀌었다. 퇴소 후 적응과 관련된 연구(Cashmore and Paxman, 2006)는 배치의 안정성(위탁보호의 경우로 위탁가정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 즉 양육자의 지속성과 주거 안정성을 매우 중요한 적응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 퇴소생은 주거 안정성은 보장되었을지 모르지만 양육자의 지속성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험험단신 퇴소생이 세상에 닻을 내리고 자리매김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원가족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퇴소생의 삶에서 원가족은 매우 중요하다.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연구(신혜령 외, 2003)에서 드러났듯이 가족의 지원이 퇴소아동의 자립생활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원가족 접촉이 물리적 재결합을 의미하는지에 관계없이, 원가족 접촉은 당위적인 과제이고, 문제는 방법이다. 물리적인 접촉과 함께 심리적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설 입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과 분리되어 시설에 보내져야 했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서로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물리적인 접촉의 효과는 커질 것이고 성인기의 과제인 가족과의 심리적인 분리

도 거부(무시)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원가족 관계의 얽힘을 푸는 노력은 퇴소생이 다른 관계(친구, 결혼, 자녀양육 등)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무모함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원가족 당사자 및 시설 모두에 대해 원가족 접촉 및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 퇴소생의 시설과 거리두기는 자연스럽게 또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양육자가 자주 변경되는 상황, 힘겨웠던 시설 생활로 인해 시설을 심리적인 안식처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시설 퇴소생을 위한 종합적인 상담지원센터(현재 자립지원센터와 유사)를 지역단위로 만들어 물질적 지원과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심리적인 지지는 오히려 같은 경험을 공유한 또래, 선후배가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별로 혹은 시설 간 퇴소생으로 이루어진 지지집단 혹은 자조집단의 운영을 통해, 퇴소생이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지 안정의 경우, 목돈이 없는 퇴소생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러한 주거문제는 심리적인 불안정과 관련된다.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퇴소 이전, 퇴소를 준비하는 결정적 시기(퇴소 1-2년 전)에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서 퇴소하여 퇴소 후에도 1-2년 간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퇴소 후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를 주거문제 해결에 모두 소진한 퇴소생에게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여유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호 기간 연장과 공동주택 지원의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퇴소생의 자립을 위해 실시하는 자립준비프로그램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초1학년부터 자립준비프로그램이 일부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반가정에서 부모가 자립 준비를 시킨다는 전제에서, 양육자가 일상생활기술,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 돈 관리, 자기보호, 사회적 발달, 일과 학업 기술의 하위 영역별로 자립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립준비프로그램의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설 환경 자체의 변화도 필요하다. 일반가정 아이들은 자립준비프로그램을 따로 받지 않는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관찰, 모방하는 것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다. 시설의 환경이 가정과 유사해진다면(소규모이면서 양육자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환경)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은 불필요할 것이고 자립의 효과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자립준비는 양육자-시설 아동·청소년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래 관계, 학교 교사와의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가능하다. 시설을 중심으로 원가족, 학교, 지역사회(자원봉사자, 후원자)가 보호의 목적(건강한 양육과 자립)을 공유할 때, 일방적인 보호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퇴소생의 자립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될 것이다.

넷째, 시설생활의 잔영, 원가족으로 인한 상처 등에서 드러났듯이, 퇴소생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퇴소 전후의 시점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적적이다. 즉, 시설보호를 받기 이전의 상처, 보호 시설에서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양육, 퇴소로 인한 성인기로의 급속한 전환, 사후 지원의 부재가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그러기에 퇴소생에 대한 지원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넓게는 입소 이전부터 퇴소 후 사후 관리 기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퇴소생 지원을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퇴소생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퇴소생도 있다. 퇴소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개별화된 퇴소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Wade와 Dixon(2006)은 전환에서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젊은이들은 “연장된 전환”을 경험하지만, 다른 극단에서는 “가속되고 더 위험한 전환”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퇴소생은 후자에 속한다. 위험한 사회에서 더 큰 위험을 조장하는 것은 퇴소에 대한 무대응일 것이다. 미국, 영국 등이 보호 종결 청소년을 위한 법률(미국은 Foster Care Independent Act, 영국은 Children(Leaving Care) Act)과 프로그램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경우 퇴소와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이나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시설 퇴소생과 함께 위탁 종료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퇴소의 정의, 퇴소 시기, 자립정도 평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 원가족 및 시설의 권리와 책임, 전달체계, 예산 확보 등이 명시된 법률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철희. 2001. “시설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동과 퇴소 후 자립지원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5회 학술대회 자료집』 : 3-45.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권지성. 200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권리연구』. 11(1): 1-29.
- 김득린. 1996. “시설퇴소연장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4: 93-105.
- 김영천. 1996. 『네 학교 이야기 - 한국 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서울 : 문음사.
- 김통원·김경륜·김성천·박은미·이상균. 2005.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개발연구』. 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연합회.
- 남윤희. 1994. “육아시설 퇴소연장아동의 자립에 있어서 자립생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변미희. 2000. “육아시설 퇴소아동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보건복지부. 2007.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현황』.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 2006.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 신혜령. 1997. “육아시설아동의 퇴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20: 151-192.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보육사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167-193.
- 신혜령·박은미·강현아. 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이명목. 1991. "육아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 175-201.
- 이용환. 2003.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15개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5: 115-136.
- 이혜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은. 2007.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전은진. 2006.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자립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Broad, B. 1999. "Young people leaving care: Moving towards 'joined up' solution?" *Children and Society* 13(2): 81-93.
- Baldwin, D. 1998. "Growing up in and out of care: An ethnographic approach to young people's transitions to adulthood". Ph D Thesis, University of York Library: York.
- Cashmore, J. and M. Paxman. 2006. "Predicting after-care outcomes: The importance of 'Felt security'".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1(3): 232-241
- Courtney, M. E., I. Piliavin, A. Grogan-Kaylor, A. Nesmith. 2001. "Foster Youth Transitions to Adulthood: A longitudinal view of youth leaving care". *Child Welfare* 80(6): 685-717.
- Creer, T. L. 1997. *Psychology of adjustment: An Applied Approach*, Prentice Hall.
- Horrocks, C. 2002. "Using life course theory to explore the social and developmental pathways of young people leaving care". *Journal of Youth Studies* 5(3): 325-336.
- Iglehart, A. F. 1994. "Adolescents in foster care: Predicting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3): 159-169.
- Leathers, S. 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 Maluccio, A., R. Krieger, and B. Pine. 1990. "Adolescents and their preparation for life after foster family care: An overview." pp. 5-17, in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edited by A. Maluccio, R. Krieger and B. Pin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Mech, E. V. 1994. "Preparing foster youth for adulthood: A knowledge-building perspectiv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141-145.
- Stein, M. 2006. "Young people aging out of care: The poverty of the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 422-434.
- Stein, M. 2008. "Resilience and young people leaving care". *Child care in practice* 14(1): 35-44.
- Wade, J. and J. Dixon. 2006. "Making a home, finding a job: investigating early housing and employment outcomes for young people leaving care".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1: 199-2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Adults after Leaving the Care of the Institution

Kwon, Ji-Su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Jeong, Sun-Wuk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adults after leaving the care of the instituti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have collected various data from participants who left child care institution more than five years ago and analysed these data through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ree key themes namely, "isolation-helplessness", "being chained to their past", and "marching towards a better future". "Isolation-helplessness" is divided into "becoming a real orphan" and "fighting alone the unsupported". "Being chained to their past" are composed of "institution, a hometown that one needs to leave", "being marked as a institutionalized person" and "scars and marks". Lastly, "marching towards a better future" are grouped into "taking advantage of institutional experience", "helping each other", "drawing a fine picture of their future happiness" and "moving ahead sweeping aside all difficulties". Lastly, this study suggested politic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wellbeing of adults that have left the institutional care.

Key words: child care institution, leaving care, lived experience, qualitative study

[논문 접수일 : 09. 06. 16 심사일: 09. 07. 01 게재 확정일 : 09. 07. 21]